

국 어

1. 안긴문장의 유형이 다른 것은?

- ① 아이들은 장난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 ② 이러다가는 버스를 놓치기 십상이다.
- ③ 공부가 어렵기는 해도 결국 저 하기 나름이에요.
- ④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 ⑤ 나는 하루도 달리기를 거른 기억이 없다.

2.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 ① 독감 유행이 지나가는 대로 다시 올게.
- ② 우리는 서로 걸맞는 짝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③ 컴퓨터에 익숙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다.
- ④ 돌이켜 생각건대, 김 선생님은 정말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분이오.
- ⑤ 저는 솔직히 기대치도 않은 선물을 받아서 고마웠어요.

3. ㉠과 같은 표현 기법이 활용된 것은?

아아 ㉠광고의 나라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행복과 희망만 가득찬

절망이 꽃피는, 광고의 나라

- 함민복, 「광고의 나라」에서 -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②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③ 내 마음은 나그네요 / 그대 피리를 불어주소
- ④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

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역동학에서 이루어졌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무의식이 억압된 욕구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이 스스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방식을 성격이라고 보았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고 충족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이 형성되고 그중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와 그를 둘러싼 갈등이 무의식으로 억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역동학은 성격의 형성 과정과 성격이 개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성격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융은 다른 정신역동학자와 달리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존재하는 무의식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융은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집단 무의식 수준의 보편적 원리들이 작동하여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융은 인간의 정신이 대립원리에 의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는데, 대립원리란 개인 내에 존재하는 대립 혹은 양극적인 힘이 갈등을 야기하고, 이 갈등이 정신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융의 주장을 근거로 1940년대 MBTI와 같은 유형론적 성격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유전학과 뇌과학 등 생물학적 방법론이 크게 발전하면서 성격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부모의 양육 방식 등 환경을 강조한 정신역동학에 비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내향성과 외향성은 성격 형성에 대한 기질의 영향을 잘 보여 주는 특성이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성격 5요인 모델과 같은 특성론적 성격 이론이 확립되었다.

- ① 프로이트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 ② 생물학적 방법론은 정신역동학이 전제하는 욕구의 억압 조절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강조했다.
- ③ 융 이전의 정신역동학자들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존재하는 무의식 수준의 보편적인 원리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④ 유전학의 발전에 따른 일련의 발견들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 특성들을 통해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 ⑤ 외향성과 내향성은 서로 대립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정신 작용으로 받아들여지며, 유형론적 성격 이론이 해체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5. 다음은 받침 ‘ㅎ’의 발음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1. 놓고 → [노코]    앓던 → [안턴]    닳지 → [달치]  
 자료2. 앓네 → [안네]    뿔는 → [뿔는 → 뿔른]  
 자료3. 당소 → [다 : 쏘]    망소 → [만 : 쏘]    씹소 → [실쏘]  
 자료4. 놓는 → [논는]    쌓네 → [싼네]  
 자료5. 낳은 → [나은]    앓은 → [아는]    싫어도 → [시러도]

- ① ‘ㅎ(ᄒ, ᄒᆞ)’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쓰]로 발음한다.
- ② ‘ᄒ, ᄒᆞ’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③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④ ‘ㅎ(ᄒ, ᄒ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⑤ ‘ㅎ(ᄒ, ᄒᆞ)’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크, 트, 츠]로 발음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표현적 글쓰기는 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경시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수성가를 칭송하고 강인한 사람을 미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문화적 메시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압박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간과하도록 배운다. 심지어 나약하다는 느낌을 갖거나 힘든 감정을 품었다고 스스로를 혐오하기도 한다. 표현적 글쓰기는 종일 껍쭉 참고 발설하지 않은 취약한 측면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경청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 과정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타인이 볼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하고 글이 충분히 좋은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나 표현적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 두서없고, 누가 읽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글을 쓴 후 버리면 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과 교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표현적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는 데 효과가 있다.
- ② 표현적 글쓰기는 자수성가를 칭송하고 강인한 사람을 미화하는 데 필요하다.
- ③ 표현적 글쓰기는 타인을 의식하여 스스로 검열하는 특징을 지닌다.
- ④ 표현적 글쓰기는 참고 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청할 기회를 준다.
- ⑤ 표현적 글쓰기는 두서없이 편하게 써서 간직하도록 고안되었다.

7.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최후통첩 게임에서 두 참가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 각각 나름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A에게 1,000원짜리 100장을 모두 준 다음 그 돈을 다른 한 사람인 B와 나누라고 지시한다. 이때 A는 자기가 제안하는 액수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B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B가 그 제안을 수용하면, 두 사람은 A가 제안한 액수만큼 각각 받는다. 만약 B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 아무도 그 돈을 받지 못한다. 이는 일회적 상호작용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뿐이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이익에 충실한 개인들이라면, A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제안하고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A가 단 1,000원만 제안하더라도,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B는 ( ㉠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합리적 자기 이익에 충실하다고 확신한다면, A는 결코 1,000원 이상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을 제안하는 일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한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개인들에게서 일어날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낮은 액수의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명백한 결과에 따르면 총액의 25% 미만을 제안할 경우 그 제안은 거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록 자기의 이익이 최대화되지 않더라도 제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액수를 반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점은 이를 지지해 준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 ㉡ )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
- ② ㉠: 1,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든가,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 인간이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 ③ ㉠: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 ④ ㉠: 1,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든가,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 인간의 행동이 경제적 이득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 ⑤ ㉠: 제안한 1,000원을 받든가, 한 푼도 받지 못하든가  
 ㉡: 인간이 공정성과 상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는다

8. 다음 글에 서술된 ‘나이프 아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떤 화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예술 경향을 나이브 아트라고 한다. 우리말로 소박파라고도 불리지만 특정한 유파를 가리키기보다 작가의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이프 아트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주제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이브 아트 예술가로는 앙리 루소, 앙드레 보상, 모리스 허쉬펠드, 루이 비뱅, 그랜마 모지스 등이 있다. 이들은 서양 미술의 기본 규칙인 원근법, 명암법, 구도 등에 구속되지 않는 평면적 화면,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채, 자세한 묘사 등을 특징으로 보여 준다.

전업 화가가 아닌 본업이 따로 있어 낮은 취급을 받던 아웃사이더 예술이었지만, 독일 출신의 컬렉터이자 비평가 빌헬름 우테가 루소, 보상 등의 화가들을 발굴하며 하나의 예술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 이후 나이브 아트는 피카소와 같은 기존 미술의 권위와 전통에 반하는 그림을 그리려는 화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현대미술의 탄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 < 보 기 > —

- ㄱ. 나이브 아트에 속하는 화가로 루소, 보상 등이 있다.
- ㄴ. 나이브 아트는 특정한 유파를 가리킨다.
- ㄷ. 나이브 아트 작가들은 서양 미술의 기본 규칙을 따르고자 한다.
- ㄹ. 현대미술은 나이브 아트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9.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늦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땀들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뺨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 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영기는 소리 식어 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활아 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 김선우, 「단단한 고요」 -

- ①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무에 매달린 도토리에서부터 묵으로 영길 때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시어인 ‘고요’와 ‘시끄러운’을 병치시켜 역설의 미학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인 도토리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여 주고 있다.

10.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 아동 정신의학자 존 볼비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이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가 엄마와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 (나) 아동 정신의학자로 활동하며 연구를 이어간 끝에, 볼비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아이는 정서 발달과 행동 발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또한 아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필 때 아이는 보호받는 기분, 안전함,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해서 생존할 확률을 높이는 요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다) 애착이란 시간이 흐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지되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고 싶은 감정이 애착의 핵심이지만 상대가 반드시 똑같이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하지만 볼비는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면 엄청나게 괴로워하며, 다른 사람이 돌봐 주거나 먹을 것을 줘도 그러한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엄마와 아이의 유대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의미였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다)-(나)-(라)
- ③ (나)-(가)-(다)-(라)
- ④ (다)-(가)-(라)-(나)
- ⑤ (다)-(라)-(가)-(나)

##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픈AI사에서 개발해 내놓은 ‘챗지피티(chatGPT)’의 열기가 뜨겁다. 챗지피티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구축된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와 채팅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한다. 예를 들어 “3+4를 계산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 줘”라고 요구하면, 챗지피티는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를 출력해서 알려 준다. 뒤이어 “같은 작업을 R에서 사용하는 코드로 짜 줘”라고 말하면,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같은 기능의 R 코드를 제공한다.

우리는 어떻게 시시각각 신기술로 무장하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인공지능이 해 줄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할 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챗지피티의 흥미로운 특징은 매우 성찰적인 인공지능인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형편없는 자기반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의 기능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지, 기계의 역할이 아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오류를 교정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명백하게도 인간 사용자의 특성과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사용자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 가고 있는 구글 번역기는 영어-스페인어 사이의 전환은 훌륭하게 수행하지만 영어-한국어 사이의 전환은 그만큼 잘하지 못한다. 그 사용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사회의 소수자는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에서도 소수자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 대해 성찰하는 역할만큼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맡기지 말아야 할 영역이다.

인공지능의 범람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한 인간 스스로의 가치와 주체성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용감하고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인간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에도 인간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된다.
- ③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잘 수행하더라도 인간은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④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 ⑤ 인공지능은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 자신의 오류를 교정하고 최적화한다.

## 12. 다음 글은 글쓰기의 자세에 대한 것이다.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이 세상 모든 사물 가운데 귀천과 빈부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정하지 않는 것은 오직 문장뿐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선비라도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빛을 후세에 드리울 수 있으며, 아무리 부귀하고 세력 있는 자라도 문장에서는 모멸당할 수 있다.
- (나) 배우는 자는 마땅히 자기 역량에 따라 알맞게 쓸 뿐이다. 억지로 남을 본떠서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글쓰기의 본령이다.
- (다) 글이란 것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제목을 놓고 붓을 잡은 다음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고 억지로 고전의 사연을 찾으려 뜻을 근엄하게 꾸미고 글자마다 장중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화가를 불러서 초상을 그릴 적에 용모를 고치고 나서하는 것과 같다.
- (라) 문장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첫째로 주의할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면 마음이 이치에 통하고 온갖 관찰력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 (마) 대체 글이란 조화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문장은 반드시 정교하게 되나 손끝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정교하게 되지 않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 ① (가): 글쓰기에서 훌륭한 문장은 빈부귀천에 따라 높고 낮음이 정해진다.
- ② (나):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 ③ (다): 글에서 중요한 것은 꾸미는 것보다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 ④ (라):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⑤ (마): 글은 마음으로부터 이뤄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13. 밑줄 친 동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씻어 놓은 상추를 채반에 받쳤다.
- ② 마을 이장이 소에게 받쳐서 꿈쩍을 못 한다.
- ③ 그녀는 세운 무릎 위에 턱을 받치고 앉아 있었다.
- ④ 양복 속에 두꺼운 내복을 받쳐서 입으면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
- ⑤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받혀도 변변한 옷 한 벌 사기가 힘들다.

## 14. 밑줄 친 피동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은 두 문단으로 나뉜다.
- ② 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인 광경이 장관이었다.
- ③ 벌목꾼에게 베인 나무가 여기저기에 쌓여 있다.
- ④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짚히는 바가 없다.
- ⑤ 안개가 건히고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 ① 일이 있어서 숙제를 못했다.
- ② 총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 ③ 한달간 전국 일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 ④ 현대사회의 제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 ⑤ 이번 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 16.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로 옳은 것은?

|   | 종로     | 여의도     | 신라    |
|---|--------|---------|-------|
| ① | Jongro | Yeouido | Silla |
| ② | Jongno | Yeouido | Silla |
| ③ | Jongro | Yeouido | Sinla |
| ④ | Jongno | Yeouido | Silla |
| ⑤ | Jongno | Yeouido | Sinla |

##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환경 보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초창기 환경 운동의 목표는 전통적인 자연 보호, 곧 특정 습지의 특정 조류를 보호하려는 좁은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특정 종의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사랑에서는 열정적 투쟁 욕구가 생겨나는 반면,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자연 사랑은 어딘지 모르게 산만한 게 사실이다. 바로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올슨 패러독스이다. 이것은 특별한 공동 이해관계로 묶인 소규모 그룹이 얼굴을 맞대고 단호히 일을 추진할 때, 대단히 애매한 일반적 이해를 가진 익명의 대규모 집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추진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역설대로 소규모 그룹에는 로비할 좋은 기회가 주어지며, 마찬가지로 특정 사안을 반대하는 지역 저항 운동이 성공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에서 환경 정책이 아주 까다로워진다.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갖는 환경법을 요구하는 환경 정책은 애초부터 좌절될 수밖에 없다. 비록 나라와 문화마다 정도가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족벌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서서 다른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충성심이 발달했다. 환경 정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얻는다. 이기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환경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현대화 과정에서 발달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물론 자신의 직접적인 생활 환경을 지키려는 각오도 환경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환경 운동은 완전히 보편적 방향으로 발달하기는 힘들다. 우선 자신의 이해관계부터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탓에 근본적 긴장은 항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① 현대화 과정에서 부각된 인간의 이기적 이해관계는 인간이 가진 자연 지배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발달하게 되었다.
- ② 환경 운동은 특정 생물 집단의 번식과 지속성을 보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자연 경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③ 환경 운동에서 발생하는 올슨 패러독스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 ④ 환경 운동은 대규모 집단의 이해관계가 소규모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환경 운동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심은 환경 운동을 위한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 18.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지 않은 것은?

- ① 그들은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 ② 아이들은 등곳길이 마냥 즐거웠다.
- ③ 빨랫줄에 있는 빨래를 걷어라.
- ④ 마곳간에는 말 두 마리가 있다.
- ⑤ 요즘은 셋방도 구하기 힘들다.

## 19. ㉠,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김 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맛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 ㉠ )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 침지는 방문을 활각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떨어진 샷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내,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내, 병인의 땀 섞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던 김 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령탕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 ㉡ )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밟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뭇등결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 현진건, 「운수 좋은 날」에서 -

㉠

㉡

- |              |            |
|--------------|------------|
| ① 노심초사(勞心焦思) | 주야불식(晝夜不息) |
| ② 허장성세(虛張聲勢) | 전전반측(輾轉反側) |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전전반측(輾轉反側) |
| ④ 노심초사(勞心焦思) | 주야장천(晝夜長川) |
|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 주야장천(晝夜長川) |

## 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 농사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농사는 야생 곡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처럼 농사는 채집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다. 더욱이 당시 농업 기술은 보잘것없었고, 이를 극복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인간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족 번식, 곧 여성의 출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러나 신석기 시대 중후반에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광활한 대지의 개간이나 밭갈이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강한 근력이 요구되었다. 농사는 더 이상 여성의 섬세함만으로 해낼 수 없는 아주 고된 일로 바뀌었다. 마침 이 무렵, 짐짐승 기르기가 시작되면서 남성들은 더 이상 사냥감을 찾아 산야를 헤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사냥 활동에서 벗어난 남성들은 생산 활동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보조자로 밀려나서 주로 집안일이나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성이 주요 생산 활동을 담당하게 되고, ( ㉠ )

- 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
- ② 여성은 생산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 ③ 남성이 남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④ 남성은 여성을 씨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 ⑤ 사냥 활동에서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본 문학의 세계가 여자들에게 열려 있긴 했어도 ㉠헤이안 시대의 여성들은 그 시대 대부분의 책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읽을거리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독특한 취향에 상응하는 읽을거리를 손에 넣기 위해 여성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학을 창조해 냈다. 그 문학을 기록하기 위해 여성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언어를 음성으로 옮긴 가나분카쿠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언어는 한자 구조가 거의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쓰이면서 ‘여성들의 글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발터 벤야민은 “책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책을 직접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칭송할 만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논평했던 적이 있다. 헤이안 시대의 여자들도 깨달았듯이 어떤 경우에는 책을 직접 쓰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일 수가 있다. 헤이안 시대의 여성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로 일본 문학사에서, 아마도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품 몇 편을 남겼다. 무라사키 부인이 쓴 『겐지 이야기』와 작가 세이 쇼나곤의 『마쿠라노소시』가 그 예이다.

『겐지 이야기』, 『마쿠라노소시』 같은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문화적·사회적 삶이 소상하게 나타나지만, 그 당시 궁정의 남자 관리들이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던 정치적 술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언어와 정치 현장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이 쇼나곤과 무라사키 부인조차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풍문 이상으로 묘사할 수 없었다. 어떤 예이든 이런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의 삶을 향해 거울을 받쳐 들고 있었던 셈이다.

- ① 읽을거리에 대한 열망을 문학 창작의 동력으로 삼았다.
- ② 창작 국면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작품에 그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 ③ 궁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치밀하게 묘사하였다.
- ④ 한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창작에 참여하였다.
- ⑤ 문필 활동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남성적 취향의 문학 독서를 수행하였다.

## 22.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송년(送年) 모임이 회사 앞 부페 식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 ② 저 남자 배우는 애드립에 능해서 연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③ 점심시간이 끝나자 사람들은 재스민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 ④ 여행 정보 팜플렛을 얻으러 회사 근처의 여행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 ⑤ 유머가 있고 내용이 가벼운 폰트 프로그램을 한 편 보기로 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3. ~ 문 24.]

사람과 상황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놓일 수는 없다. 제한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부모의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처럼 자신의 의지나 책임이 아닌 절대적 상황이 그런 경우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는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때는 자신의 욕망이나 목표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압력이나 압박들이 단순히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균형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왜곡된 관념들로 치닫기 시작하면 상황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지배해 나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상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다른 측면이 점화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손함이나 공격성 등은 상황에 따라 점화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읽거나 들었던 단어 또는 정보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한다.

23.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내용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설명하는 내용을 병렬적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과 상황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 ② 경제적 불균형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지배할 수 없다.
- ③ 부모의 학대와 같은 상황은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이다.
- ④ 몸이 아플 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의 일종이다.
- 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공격성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점화된다.

25.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첫닭 울고 둘째 닭 울더니  
작은 별 큰 별 떨어지는데  
문을 들락거리며  
살짝이 살짝이 행인은 길 떠날 채비하네

2

나그네 새벽 틈타 떠나렸더니  
주인은 안 된다며 보내질 않네  
채찍을 손에 쥔 채 못 이긴 척 돌아서니  
닭만 팬스레 번거롭게 했구나

- 이병연, 「조발(早發)」 -

— < 보 기 > —

- ㄱ. ‘첫닭’은 시간적 배경을 드러낸다.
- ㄴ. ‘나그네’와 ‘주인’의 관계가 닭 울음으로 인해 달라진다.
- ㄷ. ‘살짝이 살짝이’는 ‘행인’의 조심스러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ㄹ. 화자는 ‘나그네’와 ‘주인’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